

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

- 보건복지부 1차관, 시·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 개최 -
- 학교의 돌봄정책과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의 연계·협력 방안 논의 -

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4일(월) 14시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·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만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,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·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.

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▲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* ▲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** ▲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.

*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외 1명 인건비(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) 추가 지원

**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 경조 혹은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출석 인정

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“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라고 말하며, “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또한 “학교 돌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와

학교 밖 돌봄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	책임자	팀 장	이성민 (044-202-3378)
		담당자	사무관	구도은 (044-202-3361)

